

길을 묻는 이에게



대행스님

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
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
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
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
십시오.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
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.
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
드립니다. <글책임: 편집자>

●보낼곳: 우 110-170
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-33
현대불교신문사
'길을 묻는 이에게' 담당자 앞
●FAX: (02)737-0697/8
●PC통신: 인터넷부디피아
http://www.budhopia.com/mem/ha
nmaum

법공양 페이지

마음공부 인연 천년에 한번도 어려워

15면에서 계속

거나 병이 들었다거나 어떠한 문제가 닥
쳐와도 재료를 삼아서 공부해야 이런 말
이죠 모든 게 자기가 지어놓은 것이니
'주인공,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' 하고 다
버리라니깐 안버리고 오히려 낮게 하는
그 일에만 매달려거든요. 근본 뿌리부터
치료해야 될텐데 썩은 뿌리는 놔두고 잎
사귀만 치료하려는 거나 마찬가지로. 하
나가 없으면 풀 셋이 다 없어지는데 말
입니다.

그럼 부처님께서 약사보살이다. 관세음
보살이다. 지장보살이다 하는 이름을 왜
내놓았습니까? 그 보살들의 이름은 관리
인으로서의 이름일 뿐이지 여러분의 마
음을 거가다 한데 합쳐 놓으면 보살이나

- 남 섭섭지 않게 하는것
- 남 가슴아프게 하지 않는것
- 남 무시하지 않는것
- 의리 저버리지 않는것
- 은혜를 아는것
- 전부 베푸는게 됩니다

중생이나 돌이 아니게 되죠. 돌이 아닌
까닭에 의식들의 인과성도 병중에도 그
냥 없어지는 거죠. 그런데 먼저 해야 할
일은 안하고 병부터 생각하고 나빠진 것
만 생각하니까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겁
니다.

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.
그 방법은 한생각 밖에 없습니다. 한생
각! 이렇게 살아도 한 철, 저렇게 살아도
한 철입니다. 한 철 소중하잖아 가는 인
생인데 무얼 그리 붙들 게 있고 가슴아
프게 살다 가야 합니까. 어느 노래 가사
에도 있듯이 '내가 공한데 무엇을 찾으
라. 모두가 공한데 무엇을 써우라.' 이것
처럼 우리 인성이 바로 그렇습니다. 그렇
게 찾을 것도 없고 세울 것도 없는 그
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한시가 바쁜
겁니다. 바쁘다고 바쁘게 돌아가서 얼른
얼른 해내는 게 아니라 한생각에, 바로
한생각에 바랄 수 있는 것이죠. 쥐가 한
생각을 잘해서 주인을 살리고 자기가 모
습을 벗듯이, 개가 한생각에 주인덕 아기
로 태어나듯이 지혜로운 한생각에 은혜
를 닮고 동시에 자기도 모습을 벗게
되는 거죠.

그렇게 자기 몸을 던지지 않고는 넘어
설 수가 없습니다. 지금은 시대가 좋아졌
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계에서 보
이는 데로 이끌고 가는 그 진리는 변치
않는 겁니다.

남에게 베푸는 것이 꼭 무슨 돈이
있어서 베풀어야만 베푸는 게 아니거든
요. 남을 섭섭지 않게 하는 것, 남을 가슴
아프게 하지 않는 것, 남을 무시하지
않는 것,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것, 은혜
를 아는 것 이런 모든 마음쓰는 일들이
전부 베푸는 게 됩니다. 돈으로 쥐야만
보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보시가 돈보다
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. 마음
의 보시가 더 크다고 해서 금방 밥을
줍을텐데도 밥먹을 걸 안준다면 그건 또
지혜롭지 못한 일이지요. 정말 지혜로운 사
람은 광풍을 들고 온 거지한테도 밥은
광풍에 담아주고 반찬은 따로 물 흐르지
않게 봉지에 담아 줍니다. 그러면서 마음
속으로 '다시는 이렇게 얻어먹지 말고
내가 놓아 지어서 내가 주수해서 내가
먹도록 해라' 하고 마음 베푸는 거죠. 그
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. 한끼 밥 잘 차
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한마음 내
줍으로써 그 사람이 세세생생 구걸하지
않고 자기 밥 자기가 먹고 또한 남에게
베풀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어
디 있겠습니까.

그런데 여러분은 태어나기 이전의 자
기를 무시하고 삽니다. 태어나기 이전 자
기는 정신계의 자기고, 지금 현실에 보이
는 물질적 세계는 바로 정신계의 자기가
형성시켜 놓은 자체거든요. 그런데 어떻
게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무시하겠

니까. 병이 낫고 안났고 일이 되고 안되
고를 떠나서 그것은 자기한테 그대로 보
배로서 있는 건데,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
들어간 도리도 알 수 없는 거죠. 항상 말
씀드리지만 '낮게 하든지 낮지 않게 하
든지 돌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할 수 있
지 않아. 지켜주는 것도 너고, 이끌어 주
는 것도 너고, 해결사도 너고, 죽이는 것
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야. 너만이 힘이
없이 할 수 있고, 너만이 보이지 않으면
서도 보이게 할 수 있고, 지금 보이는 나
와 안보이는 너가 돌이 아닌 까닭에 항
상 내가 보이면 자기도 보이고 내가 안
보이면 자기도 안보이고 하니 이 도리를
알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어' 하고
진실하게 믿고 들어가세요. 사실은 이미
이렇게 밀접하게 가설이 돼 있는 건데도
어떤 분은 그렇게도 자기 뿌리를
밟지 못하고서는 엉뚱한 생각을
해요.

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아
주 치명적인 소리를 들었다고 하
더군요. 그래서 "공부한지 얼마나
됐소?" 하고 물으면 "한 3, 4년쯤
됐습니다." 그래요. "그렇게 몇 년
동안 열심히 했더라면 이 지경까
지 오지도 않았을텐데요." 그랬더니
심장이 웃고선 "했수는 오래
됐으나 몇 번 오지는 않았어요."
이러는 겁니다. 그걸 어찌합니까.
대신 밥먹어주면 배가 부릅니까.
이 마음공부 하는 도리요 한
번 인연을 만나는 것이 천년에 한
번 만나기 어려운 공부입니다. 마음공부
하는 인연을 그렇게 쉽게 보지 마세요.
이 옷 벗고, 옷 속에 곤충의 세계를 다
벗어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
다.

그러나 그것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
니다. 보기 흉한 곤충 속에서 우리가 언
제까지 헤어지지 못해야 합니까? 비천상
보셨죠? 그리고 만화영화에 나오는 은비
까비는 이 모습으로도 뵈다가 저 모습으
로도 뵈다가, 이걸 건질려면 이 모습으
로, 저걸 건질려면 저 모습으로 나투어
다 건지고 가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하다
보면 '이하, 과거는 벌써 지나갔으니 없
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
재에 살아가는 이 현실도 없구나. 다 무
효로 돌아가는구나.' 하는 것을 알게 될
겁니다. 그것도 이력이 과거·미래·현재
로 지어졌지 이 지구가 돌아가는 자체에



그림·최주현

야. 세울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볼
것도 없고 알 것도 없는데, 그리고 모두
가 돌이 안데 뭘 그리 붙들 게 있나.'
하고는 주인공 자리이다 말기세요. 이 컵
과 이 컵이 돌이 아니라면 자기 컵 하나
가 자기 컵을 캐트리겠습니까? 마주쳐야
캐트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.

유방암이 목으로 번져

문 저는 4년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
는데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
고 있습니다.
병원에서는 암세포가 목으로 전이가
됐다고 그래요. 그래서 새로 조직검사를

그리고 급하니까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
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이러는데 판 것
까지 망가진단 말이에요. 이것을 모르고
서 그냥 함부로 해버리니 그걸 어떡합니
까. '50%만 의사한테 말하고 나머지
50%는 당신네들이 공부해서 해라'고
이렇게 말해줘도 본인들이 믿지를 않
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남의 마음
을, 자기 뿌리가 약사보살이란 걸 믿으면
좋은데 말이에요.

손자가 직장근무 힘들어 해요

문 저는 김천에 사는데 대구지원에
나가고 있습니다. 다음이 아니라

“찾을 것도 세울것도 없는 그 도리 알아야” “공연히 생각 붙이고 굶어 부스럼 만들어”

이름은 없습니다. 항상 공여지지 않고 돌
아가기 때문에 이름도 없죠. 그렇다면 이
름은 왜 지어졌느냐. 그것은 사람들을 가
르치기 위해서, 그리고 질서를 지키고 살
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런 거죠.

'불교' 하나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얼
마나 많은 가치를 늘어놓습니까? 그러나
여러분이 더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.
몸통이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가 났
었으며 또 얼마나 많은 말을 덧붙여 왔
습니까?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
몸 속에 들은 곤충들도 다 자기 모습
이니까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기 위해서는
꼭 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.
귀신이 나타나 하더라도 돌이 아니예요.
보이지 않는데 어떠한 귀신이다. 어떠한
신장이다. 어떠한 뭐가 나왔나 하더라도
겁 안나는 게 왜냐하면 산사람도 귀신이
거듭요. 죽은 사람은 죽은 귀신이지요.
그런데 산 귀신이 더 하지 죽은 귀신이
더 하겠습니까? 죽은 귀신이나 산 귀신
이나 돌이 아니예요. 그래서 주인공에도
모든 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. 정신계에
서 귀신같이 노는 것은 전부 말이에요.

보세요. 공여다가 공을 모두 집어넣으
면 뭐가 남습니까. 또 공여다 공을 집어
넣는데 그 얼마나 빠릅니까. 그런데 공연
히 생각을 붙이고 굶어 부스럼을 만들어
서는 아담들이죠. '그까지 것 한번 죽지
두 번 죽느냐. 너 있으면 나 있고 나 있
으면 너 있고 모두가 돌이 아닌데 말이

했더니 바로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를 맞
으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은 한번 먹
은 일이라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. 그때
마음에서 스님 생각이 났습니다. 그래서
안양에 와서 주지스님을 뵈고 말씀드렸
더니 관하는 걸 일러 주셨습니다. 그리고
는 용기가 생겨 병원을 다시 찾았더니
혹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 열심히
공부는 해야겠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
될지 잘 모르니까. 스님 좀 가르쳐 주십
시오.

문 그래요. 사람이 하나 하면 돌을
알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
몰라요. 생각이 그렇게 좁아요. 병원에서
줄어들었다고 하면 '또 줄어들 수도 있
지 않느냐. 그러면 완전히 없어질 수도
있지 않느냐'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
않아요? 여러분은 안타까워서 안이다. 백
혈병이다. 종양이다 이래도 나으요 격정
이 하나도 안돼요. 왜냐하면 자기 뿌리가
있으니까요. 단 하나 안타까운 것은 '그
렇게 수없이 이렇게 머리가 허탈로 말
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프다니까
참 이 증노릇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구
나!'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가끔
쓴웃음과 좀 허탈한 생각이 들어서 먼
산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.

그런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어떻게 할
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병원에 가서
무슨 소릴 들었다 하면 그냥 마음이 이
미, 마음부터 겁을 먹고 죽어버려거든요.

스물일곱살 된 손자가 신문에 다니고
있는데 자꾸만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
서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난
달에 스님은 외국 가시고 안에서도 혼자
법당에 와서 스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
갔습니다. 스님께 감사드리고요 손자가
정신이 건강해져서 이 나라에 씩씩한 일
꾼이 되도록 마음을 좀 내 주십시오.

문 저는 마음을 항상 내고 있으니까
요, 손자가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할
나로 얻어줘요. 격정하지 마시고 스님들이
함께 열심히 공부하세요. 나무는 자기 뿌
리를 믿고 살거든요. 그러나 '주인공, 네
뿌리가 있으니 내가 낮게도 할 수 있잖아'
하고 맥의 손자한테 가르쳐 주세요.

인간까지 진화 해온 이유

문 저는 대구지원 학성회 33 길의
수리고 합니다. 제가 공부한 것은
요, 태초에는 미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
었을텐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있
었으면 뭘 했을 것을 왜 사람까지 진화했
해서 이렇게 병들고 들어야 되고 학교 가
서 공부도 해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
는지 궁금합니다.

문 그것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
봐요. 바람이 있고 흙먼지가 있고
물이 있는데 이걸 스스로 자생으로서 생
긴 거죠. 이걸 자연의 원리면서 자연의
이치예요. 그렇게 생겨서 모아지고 움직
임이 있다보니 격차가 생긴 거죠. 그래서

생명체가 생기는 거구요. 그렇게 해서 이
날까지 진화를 해서 인간까지 됐죠. 그런
데 인간이 제일 나중에 태어 살다보니까
물리가 터지고 지혜가 생겼죠. 보세요.
의학이나 과학이 얼마나 방대하게 발전
했는지요.

그러나 우리가 최초로 내가 어디서 온
것을 모르다면 아주 귀한 과학자가 됐다
하더라도 그것은 과학자가 아니죠. 남의
생명을 우습게 생각하고 남의 일을 우습
게 생각하고 남을 깔보는 일이 많고 아
상과 아만이 많아서 자기를 돌아보지를
못하게 돼 있어요. 중세계를 벗어난다 하는 건
태어났느냐를 생각해 봅시다. 많은 고초
를 겪어오면서 곤충으로부터 인간까지
올라올 때 수만 년 아니 헤아릴 수도 없
는 그 세월을 거쳐 왔습니다. 얼마나 많
은 광년을 거쳐왔는지 숫자도 없습니다.
자연의 이치란 게 이게 곤충이 너무 성
하고 약이 많고 독이 너무 많으면 그냥
말하게 돼 있어요. 그게 질서이기도 하
죠. 어떻게 돌아가든지 죽게 만들어요.

그런데 그중에도 인간이 이렇게 물리
가 터지게 되면 이 중세계를 벗어나게
되거든요. 중세계를 벗어나는 건 아
까도 얘기했지만 곤충의 주머니에서 벗
어난다는 말도 되죠. 우리가 곤충으로부
터 살아서 인간까지 되었지만 사실은 인
간도 곤충의 주머니예요. 그런데 어떻게
살았느냐에 따라 독의 곤충의 주머니가
되느냐, 선의 곤충의 주머니가 되느냐 하
는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떻게 사느냐에
따라 이게 벗어지고 새로운 곤충의 주머
니를 만들고 이러는 거죠. 만약에 그러한
문제가 없었다면 이 산하대지가 전부 새
카만 그냥 튀라고 그럴까. 아무 것도 없
는 그런 게 되겠죠. 하지만 그것이 또 불
에서도 살고 캄캄한 데서도 살고 모두
사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어디선가 생기
겠죠.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.

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니까 어서어
이 공부를 해서 벗어나는 데 노력을 해
라 하는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인정을
배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, 무조건 다
배풀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배풀면서
정신계의 자기를 믿고 오직 거가다 말기
고 길을 걸어야 이런 뜻이죠. 어쩔 수 없
잖아요. 이왕지사 태어났으니, 중요한 건
어떻게 살고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중요
하죠.

내가 태어났으니 상대도 있고 종교
도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세상에 뭐가
있겠습니까.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 이 말
을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다 하
고 내일 모레까지 해도 못다 합니다. 우
리가 어떻게 왔든 인연이 있으니까 나왔
겠죠. 나왔으니 나부터 알아야지 내가 없
는데 어떻게 상대가 있고 종교가 있느냐
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'네
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느니
라' 하고 말씀하신 거죠.

질에서 보통 공양 올린다 할 때도 많
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. '꽃공양' 할 때
도 이 세상이 벌어질 때 어떻게 꽃만 있
었겠습니까. 나무도 생기고 풀도 생기고
물도 생기고 전부 생기고 난 뒤에 세월
을 겪어오면서 진화했죠. 그러나 우리가
그걸 벗어날려면 모두가 공하다는 걸 알
고 한마음으로써, 공심으로써 공양을 올
려야 공덕이 될텐데 공심은 커녕 꽃 한
나 속에 온통 내 아들 내 남편 뭐 이런
생각만 가득하니 꽃공양의 의미는 천리
만리 달아나고 없어요. 그러니 이게 적음
이 됩니까. 공덕으로 이어지느냐구요.

이 마음도 그래요. 공양미를 올리고 초
를 하나 할 때라도 내 마음의 불을 꺼서
내 이 몸이 타서 썩어지는 듯한 그 마음,
애처로운 그 마음, 그리고 공심으로써 공
양을 올려야 부처님도 함께 공심으로 들
었겠습니까.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 이 말
을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다 하
고 내일 모레까지 해도 못다 합니다. 우
리가 어떻게 왔든 인연이 있으니까 나왔
겠죠. 나왔으니 나부터 알아야지 내가 없
는데 어떻게 상대가 있고 종교가 있느냐
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'네
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느니
라' 하고 말씀하신 거죠.

질에서 보통 공양 올린다 할 때도 많
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. '꽃공양' 할 때
도 이 세상이 벌어질 때 어떻게 꽃만 있
었겠습니까. 나무도 생기고 풀도 생기고
물도 생기고 전부 생기고 난 뒤에 세월
을 겪어오면서 진화했죠. 그러나 우리가
그걸 벗어날려면 모두가 공하다는 걸 알
고 한마음으로써, 공심으로써 공양을 올
려야 공덕이 될텐데 공심은 커녕 꽃 한
나 속에 온통 내 아들 내 남편 뭐 이런
생각만 가득하니 꽃공양의 의미는 천리
만리 달아나고 없어요. 그러니 이게 적음
이 됩니까. 공덕으로 이어지느냐구요.

이 마음도 그래요. 공양미를 올리고 초
를 하나 할 때라도 내 마음의 불을 꺼서
내 이 몸이 타서 썩어지는 듯한 그 마음,
애처로운 그 마음, 그리고 공심으로써 공
양을 올려야 부처님도 함께 공심으로 들